

보도시점

2026. 9. 8.(화) 11:00  
< 9. 9.(수) 조간 >

배포

2026. 9. 8.(화)

## 관계기관 협업·전주기 밀착 지원으로 CES 참가기업 수출길 넓힌다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개최, ‘CES 한국관 운영내실화 방안’ 등 협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8일(화) 관계부처·지방정부 및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혁신기업의 CES 참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CES 통합한국관 운영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 세계 최대 규모의 IT·첨단기술 전시회로, CES 2027은 '27.1월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예정

그간 정부와 유관기관은 우리기업의 CES 참가를 지원해 혁신상 수상·투자 유치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기관별로 참가기업을 별도 지원하는 과정에서 통합한국관의 일관된 브랜드 구현에 한계가 있었고, 기관 간 사업 연계 및 참가기업에 대한 사후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산업부는 KOTRA와 함께 ▲참여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날 협의체에서 논의하였다.

우선 행사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KOTRA 해외조직망 및 수출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바이어 리스트 발굴과 사전 매칭을 추진하고, CES 혁신상 수상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업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CES 행사 주관사인 CTA에서 한국 전자전과 연계한 사전 행사('26.10.13~14, CES Asia Unveiled Seoul)를 개최하여 CES 2027의 주요 트렌드를 소개하고, 국내 혁신기업과 글로벌 기업·투자가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CES 2027 개최 기간('27.1.6~9)에는 현지에서 글로벌 바이어·투자자와의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하고, 해외 VIP·참관객을 대상으로 통합한국관과 국내

혁신기업을 소개하는 ‘K-테크 도슨트’를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집중한다.

행사 이후에는 CES 성과·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디브리핑과 바이어·투자자 대상 쇼케이스를 결합한 ‘AI 혁신플라자’를 개최하여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KOTRA 주도로 해외 기업·기관의 기술 실증수요를 발굴하여 우리 혁신기업과의 매칭 및 1대1 면담을 주선하는 후속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CES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KOTRA 지원사업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CES참전 전주기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관계기관 간 사업 연계도 강화한다. 향후에는 CES 참가계획 수립 단계부터 부스 위치·디자인을 사전 협의하여 통합한국관의 일관된 브랜드를 구현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협업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 전시 활성화와 첨단산업·소비재 분야 글로벌 전시회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전시산업발전 로드맵(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9월 중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CES 참가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기술을 갖춘 국내 혁신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     |     |                    |
|------|----------------|-----|-----|--------------------|
| 담당부서 | 무역정책관<br>무역진흥과 | 책임자 | 과 장 | 김열규 (044-203-4030) |
|      |                | 담당자 | 서기관 | 김수정 (044-203-4017) |
|      |                |     | 서기관 | 유강열 (044-203-4034) |
|      |                |     | 주무관 | 김진홍 (044-203-4037) |

**< 미 CES 전시회 개요 및 현황 >**

- ◇ **(개요)** 매월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기술 전시회로 관련 비즈니스 핵심 플랫폼 역할 수행
- ◇ **(의미)** 우리 참가기업들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전략적 시험 무대
- ◇ **(현황)** '26년 행사에 853개사 참가하며 글로벌 3위 수준 참가규모를 유지하였으며, 혁신상 수상기업 실적은 증가추세 (최근 3년 평균 매년 약 150개사 수상)

**□ 개선 필요사항**

- 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전시관 운영 연계성 및 국가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 참가기업 및 혁신상 수상기업 연속지원·사후관리 확대 필요

**□ CES 통합한국관 운영 내실화 방안**

**① (준비단계) 참가기업의 사전 준비·마케팅 역량 강화**

- CES 전주기 매뉴얼 배포, 기술·시장 트렌드 제공 등 정보지원 강화
- KOTRA 무역관, 온라인 플랫폼 활용 사전 바이어 발굴 및 매칭지원
- CES 혁신상 수상전략 세미나 개최 및 기업별 1:1 컨설팅 지원
- 국내 사전행사인 'CES Asia Unveiled Seoul(10.13-14)' 참가 지원

**② (참여단계) 현장 비즈니스 성과 창출 지원**

- 'K-Startup Open Pitching Day('27.1.6-7)' 행사 개최 및 운영
- 주요 글로벌 기업과 우리 참가기업간 현장 네트워킹 지원
- K-테크 도슨트 등 주요 외신·VIP 대상 우리기업 및 제품 글로벌 노출 확대

**③ (행사 사후지원) 기업지원을 실질적인 수출·투자 성과로 연계**

- 디브리핑+쇼케이스+피칭을 결합한 'AI 혁신 플라자' 후속 개최
- 현지 기업·기관 실증수요 발굴 및 지재권 보호 강화, 후속지원을 통해 실질적 수출 성과로 연계

**④ (운영체계 개편)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통합한국관 운영체계 개선**

\* '27년 CES 참가기업 선정이 완료된 점을 감안, 선정절차 관련 개선사항은 '28년 CES부터 적용 가능

- 관계기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
- 통합한국관 규모를 확대하고 기관별 강점을 활용한 신규 협업사업 발굴